

山林組合 發展을 위한 組合員 意識性向 分析

최종운¹⁾ · 최종천¹⁾

The analysis of association members consciousness inclination for development of Forestry Association Jong-woon Choi and Jong-cheon Choi

요 약

본 연구는 산림조합 조합원의 의식성향 분석을 통하여 산림조합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 (1) 산림조합 조합원은 협동조합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한국의 입업특성에 맞는 협동조합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 (2) 산림조합법 개정에 대하여 조합원의 59.9%, 산림조합이 국가 산림사업의 전담기관화에 대하여 39.5%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조합원은 사유림 경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운영예산의 부족과 입산물 공동판매망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조합가입후 자신의 산림경영에 대하여 25.9%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 (4) 사유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대리경영제에 대해서는 34.0%가 반대하고 있었으며, 대리경영제의 방식에 있어서는 48.8%가 부분위탁을 원하고 있었다.
- (5) 농산촌의 노령화에 따라 산림작업단의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산림작업단은 국가나 산림조합에서 육성하여 적기에 입업노동을 공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 (6)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은 품목별 전문조합의 설립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ABSTRACT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suggest the development scheme of Forestry Association by the method of member's consciousness inclinat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Most of Association members perceived the necessity for re-education about cooperative association, especially the research suitable to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Forestry.
2. 59.9% of members had negative response against revision of Forestry Association Law, and 39.5% of members had negative opinion about taking exclusive charge of forest working by Forestry Association, noting the need of immediate publicity activities for those charges.

1)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산림자원학부. Division of Forest Resources, College of Forest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01, Korea.

3. Large number of members pointed out that the most serious problems for the management of private forest were the budgetary deficit and the lack of joint marketing system of forest products. 25.9% of members had complaints about the management of their own forests after joining the association.
4. 34.0% of members opposed Proxy Management and 48.8% of members wanted Portion Consignment System.
5. The analysis noted that due to increase of the aged in rural commun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Forestry Working Corps, which is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and Forestry Association to supply forestry labor in a appropriate time.
6. Most of Association members liked establishment of Special Association for each forest products.

Key words : Forestry Association, forest members, forest working, forestry management, proxy management

서 론

산림면적의 70.4%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유림의 특징은 산주수의 90%에 달하는 5ha이하의 영세한 산림소유구조, 49.9%에 달하는 과다한 부채산주, 낮은 임도밀도 및 기계화율, 임업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등 생산 및 경영여건의 취약과 재산증식, 모지확보 등 산림경영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최중운과 최종천, 1994). 또한 국내·외적인 환경여건의 변화 특히, 뉴라운드(WTO) 협상이 타결되면 임업에 대한 국내보조와 관세율의 인하, 수출보조금의 철폐 등 우리 나라 사유림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조합은 일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임업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협동조합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산림조합은 치산녹화, 산림보호 등 정부의 산림사업 대행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치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산주를 위한 사업에 소홀하였다. 그러나 1993년 협동조합으로 전환됨으로써 산주들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조합가입과 사업활동 참여 등 조합원과 함께 하는 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최중천과 최종운, 1996).

문민정부 출범 후 국제화, 지방화에 부응하도록

협동조합 역할의 재정립을 위하여 농어촌발전위원회가 협동조합의 개혁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협동조합개혁위원회, 1998).

이러한 협동조합의 개혁은 WTO의 출범과 OECD가입으로 협동조합도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특히 1997년말부터 시작된 국가경제위기(IMF)의 초래는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는 임협, 농협, 축협, 인삼협 등 4개 협동조합 구조개혁안에 대하여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임업협동조합은 타 협동조합과의 통합이 아닌 산림조합으로 환원하게 되었다. 임업협동조합이 명칭은 산림조합으로 되돌아갔지만 그 업무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협동조합의 성격을 그대로 간직하게 되었다(김세빈, 1999)

산림조합도 1996년 국제협동조합연맹에 가입한 협동조합 조직체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산림사업이 대부분이고, 조합원을 위한 유통, 판매, 구매사업 등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또한 협동조합 조직체로서 산림조합법에 협동조합 원칙의 법률 규정 미비, 사유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개발 미흡, 조합원의 조합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시책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이루어진 산림조합에 대한 연구

는 산림조합 계통조직의 문제점 분석(박태식, 1975 ; 손중호, 1984), 산림경영협업체에 대한 연구(김중관, 1984 ; 김중관, 1988 ; 손철호, 1990 ; 최종운, 1996), 산림조합의 경영전략 등 사업분석(박경석, 1989 ; 유병일, 1989) 등이 주를 이루었을 뿐, 산림조합 발전의 가장 핵심적 주체인 전체 조합원에 대한 충분한 의식성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산림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조합과 조합원이 상호 협력하에 사유림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식성향을 분석하여 임업분야의 기초적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자는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 중 목적적 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산림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입수하여 산림조합 대의원 120명과 일반 조합원 100명씩 총 220명을 선정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우편설문에만 의존할 경우 회수율이 매우 낮아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전화연락이 가능한 조합원만을 선정하였다. 설문지 발송은 道와 廣域市의 조합원 입수 명부의 비율과 소득환경이 열악한 농산촌지역 조합원의 의식조사에 보다 치중하기 위하여 道 단위의 경우에는 20부, 廣域市의 경우에는 각각 10부씩 총 220부를 발송하였다.

2.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조사의 내용이 보다 효과적으로 구성되도록 조합의 임직원 및 관련 분야의 대상자들에게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내용을 보완·정리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일반사항, 협동조합, 산림경영, 임업노동, 임

업소득, 법률개정의 6개 항목 4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현지 방문을 통한 면담 설문조사가 바람직하나 시간적 제약성, 비용 등으로 인하여 우편설문과 전화조사만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조사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지 회수율은 220부중 162부가 회수되어 약 73.6%이며 2부가 반송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PC통계 프로그램과 EXCEL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95% 유의수준에서 오차범위는 ± 3.6 이다.

결과 및 고찰

1. 산림조합의 의의

산림조합의 발전은 우리 나라 산지의 시대적 역할 변화에 따라 그 흐름을 같이 하여 왔다. 정부는 황폐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산업개발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1972년부터 10개년 단위로 국토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1년까지 지방분산형 국토정책의 형성, 복지향상과 국토환경보존, 통일을 위한 국토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산지의 역할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모하였다. 1960년대의 연료난 해결을 위한 연료림 조성과 농지이용, 1970년대 타용도로의 전환 및 경제림 조성, 1980년대 산림의 다목적 이용과 산림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1990년대에는 임업기반조성과 산림의 다양한 역할 증진을 위하여 산지가 이용되었다. 1998년 이후에는 산림산업 육성, 녹색생활 환경 및 산림생태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산지를 이용할 계획이다(최종천과 최종운, 1998).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국토이용을 위한 산지의 역할 변화에 따라 그 중심적 단체로서 활동해온 것이 산림조합이라 할 수 있다. 산림조합이 국가위주의 산림사업, 관치행정의 인식 등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발전하여 왔던 것이다. 즉 산림조합은

협동조합으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통계조직으로서 토지조합적 성격이 강한 산림조합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1993년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서 강제적 가입이 아닌 조합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조합원 가입과 보다 조합원을 위한 사업의 확대로 협동조합적 성격의 산림조합으로 탈바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림조합은 완전한 협동조합적 성격의 산림조합보다

는 토지조합적 성격이 강한 면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9년 12월 임업협동조합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산림조합이 국가 산림사업의 전담기관화됨으로서 토지조합적 성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경제·사회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협동조합적 성격의 산림조합이 나타나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토지조합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박경석, 1989).

〈표 1〉 일반사항 분석

항 목	구 분	조 합 원	
		빈 도(명)	비 율(%)
연 령	20대	1	0.6
	30대	2	1.2
	40대	15	9.3
	50대	41	25.3
	60대이상	103	63.6
학 력	대학원이상	4	2.5
	대 학(교)	25	15.4
	고 졸	55	34.0
	중 졸	51	31.5
	초등학교졸 이하	27	16.7
가 족	3명이하	45	27.8
	4명	38	23.5
	5명	34	21.0
	6명이상	34	21.0
	무 응 답	11	6.8
소 득	100만원이하	73	45.1
	100-150만원	37	22.8
	150-200만원	24	14.8
	200-300만원	14	8.6
	300만원이상	12	7.4
	무 응 답	2	1.2
직 업	농 립 업	129	79.6
	상 업	13	8.0
	공 무 원	2	1.2
	회 사 원	3	1.9
	기 타	15	9.3

〈표 2〉 조합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조사항목	구 분	빈 도(명)	백분비(%)
협동조합 교육	있다	86	53.1
	없다	76	46.9
협동조합의 내용 유무	잘알고 있다	25	15.4
	보통이다	120	74.1
	전혀 모른다	17	10.5
협동조합 정기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필요하다	40	24.7
	그저그렇다	106	65.4
	필요없다	9	5.6
	무응답	7	4.3
협동조합 교육빈도	필요없다	6	3.7
	1-2회	118	72.8
	3-4회	24	14.8
	5-6회	2	1.2
	많을수록 좋다	7	4.3
	무응답	5	3.1
협동조합 내용에 대한 조합원 의견	협동조합의 이론	37	22.8
	협동조합의 정의	17	10.5
	협동조합의 내용	73	45.1
	기 타	32	19.8
	무 응 답	3	1.9
협동조합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협동조합의 정기교육을 통한 인식의 확대	36	22.2
	한국임업에 맞는 협동조합 연구	51	31.5
	협동조합의 경제부분 연구 강화	49	30.2
	협동조합간 협동에 관한 연구 강화	16	9.9
	기 타	10	6.2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의 임업여건과 조합원의 산림에 대한 인식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완전한 협동조합적 산림조합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산림조합이 국가의 산림사업 전담기관화가 됨으로써 오히려 토지

조합적 성격의 조합이 강하게 대두될 경우 조합원의 산림에 대한 관심부족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져 임업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협동조합의 제7원칙에서와 같이 협동조합도 조합원의 지위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여건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적 성격에다 중점을 두고 토지조합적 성격을 가미한 산림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조합원의 의식성향 분석

1) 일반사항

산림조합 조합원에 대한 일반 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위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령, 학력, 가족, 소득, 직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령에 있어서는 50대 이상의 노령층이 전체의 8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우리 나라 농산촌 지역의 노령화현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

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소가족에서부터 대가족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월평균 소득은 사실상 임업후계자, 독립가 등을 제외하고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라기 보다는 농업 등 타분야에서 얻어지는 소득일 것으로 판단된다. 조합원의 대부분은 조합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소재산주들로서 농업과 임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의 조합원은 농협과 산림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고 있었다.

2) 협동조합

과거부터 내려오던 산림조합이 1993년 협동조합으로 전환됨으로써, 산림조합은 산주를 위한 구매, 유통, 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이용과 출자 등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책

〈표 3〉 산림조합법을 개정

조사항목	구 분	빈 도(명)	백분비(%)
		만족한다	49
산림조합으로의 환원에 대한 조합원 의향	그저그렇다	10	6.2
	불만이다	87	59.9
	무응답	6	3.7
	만족한다	76	46.9
산림사업 전담기관에 대한 의견	그저그렇다	65	40.1
	불만이다	14	8.7
	무응답	7	4.3
	전혀 그렇지 않다	32	19.7
산림사업 전담기관화로 인한 조합원에 대한 사업소홀	그저그렇다	54	33.3
	매우 그렇다	64	39.5
	무응답	12	7.4
	매우 만족한다	52	32.1
산림조합 관리·감독 강화	그저그렇다	73	45.1
	매우 불만이다	25	15.4
	무응답	12	7.4

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체인 산림조합 조합원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조합의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의식분석 결과 조합원들은 산림조합 구성원으로써 협동조합의 원칙, 이론, 정의 등 협동조합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산림영급구조, 산림부산물 이용방법 등 한국의 임업현실에 맞는 협동조합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향을 반영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차원에서 조합원들을 위한 협동조합 교육교재의 작성,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3) 법률개정

조합원들은 임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2000년에 다시 산림조합으로 환원하게 된 것에 대하여 부정적(59.9%)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동조합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산림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즉 '산림계', '산림감시원' 등의 용어는 농산촌 주민들에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다(박경, 1999). 산림조합이 정부의 각종 산림사업 전담기관화 되는데 대하여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소유산림에 대한 산림경영상의 혜택이 보다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46.9%가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산림사업의 전담기관이 됨으로써 산림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강화되는데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4) 조합가입 및 산림경영

(1) 조합가입

우리 나라의 사유림 산주는 약 200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산주는 약 50만명으로 전체 산주의 4분의 1만이 산림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조합에 가입한 산주들의 70.4%가 10ha이하의 산

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의 경제화를 위해서는 임지의 교환·합병·임지정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종천과 최종운, 1996).

조합원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에 가입하였으나, 가입 이후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산림경영자금을 조달하고 있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은행의 융자금을 이용한 산림경영자금의 조달은 매우 낮았다.

정부는 취약한 생산기반에서 오는 사유림 경영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유림 경영이 보장되는 보속적 산림생산단계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대리경영제를 도입하였다(장철수 등, 1997). 그러나 이 제도가 언제나 정착될 것인지 기대하기가 어렵다(박경, 1999)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리경영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찬성하는 조합원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합원들의 상당수도 대리경영제가 실시되면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리경영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조합원들이 소유한 산림에 대하여 대리경영제를 통한 효율적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행 대리경영제는 의무제가 아닌 권장제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경우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경영제가 실시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임업진흥촉진지역 내에 산림을 소유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리경영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산림조합 가입 이후의 변화

조합원은 산림조합 가입 후에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업기술의 향상에 대해서는 30%이상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산림경영, 재정지원, 임산물 공동판매, 작업효율의 향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표 4〉 조합원 가입 및 산림경영

조 사 항 목		구 분	빈 도(명)	백분비(%)
조합원 소유 산림면적	5ha미만		79	48.8
	5-10ha		36	22.2
	10-20ha		23	14.2
	20-50ha		9	5.6
	50-100ha		3	1.9
	100ha이상		9	5.6
	무응답		3	1.9
소유산림에 대한 인공림 비율	10%미만		73	45.1
	10-30%		36	22.2
	31-50%		23	14.2
	51-70%		10	6.2
	70%이상		15	9.3
	무응답		5	3.1
조합원으로서의 가입 동기	조합직원의 권유에 의해서		21	13.0
	산림경영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70	43.2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하여		10	6.2
	입업의 발전을 위하여		61	37.7
소유 산림의 산림경영 유무	있다		70	43.2
	없다		86	53.1
	무응답		6	3.7
소유산림에 대한 산림경영 기간	1년 미만		17	10.5
	2-5년		16	9.9
	6-10년		27	16.7
	11-20년		25	15.4
	20년이상		71	43.8
	무응답		6	3.7
산림경영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9	5.6
	그저그렇다		93	57.4
	불만이다		42	25.9
	무응답		18	11.1
산림경영자금	자신의 개인자금		107	66.0
	은행 융자금		12	7.4
	국가나 자치단체의 지원금		22	13.6
	기타		15	9.3
	무응답		6	3.7
대리경영제에 대한 의향	찬성한다		45	27.8
	그저그렇다		61	37.7
	반대한다		55	34.0
	무응답		1	0.6
대리경영제 방식	부분위탁		79	48.8
	완전위탁		28	17.3
	기타		41	25.3
	무응답		14	8.6

〈표 5〉 산림조합 가입 이후의 변화

(단위 : 명, %)

구 분	임업기술 향상		활발한 산림경영		재정지원		임산물 공동판매		작업효율의 향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24	14.8	15	9.3	15	9.3	14	8.6	15	9.3
그렇다	33	20.4	24	14.8	16	9.9	8	4.9	20	12.3
보통이다	52	32.1	36	22.2	33	20.4	26	16.0	32	19.8
그렇지 않다	14	8.6	21	13.0	23	14.2	26	16.0	15	9.3
전혀그렇지않다	6	3.7	8	4.9	14	8.6	24	14.8	20	12.3
무응답	33	20.4	58	35.8	61	37.7	64	39.5	60	37.0

(3) 산림경영의 저해요인

산림경영상 조합원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운영예산 부족, 기계·장비의 부족, 소유산림의 영세성, 부채산주의 과다, 임산물 판매곤란, 소득작목 부족, 그리고 전문기술 및 인력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특히 운영예산의 부족과 소득작목의 부족, 전문기술 및 인력부족이 산림경영상의 저해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관련기관의 간섭, 조합원들간의 유대관계 부족, 산림조합의 지도부족에 대해서는 산림경영상의 저해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4) 사유림경영 활성화 방안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은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34.0%가 정책자금의 지원이 확대되어

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0.0%는 산채, 버섯, 약재 등 산림부산물의 생산으로 임업소득의 창출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6.0%는 소규모 산주들을 위한 협업경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5) 임업노동

현대의 핵가족화, 가족 구성원의 도시 이주현상이 본격화되면서 농산촌의 고령화, 부녀화 등 노동인력의 급격한 감소로 말미암아 산림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조합원은 산림경영을 위하여 자가노동을 이용하는 비율(56.8%)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 1〉의 연령분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0대 이상의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

〈표 6〉 산림경영상의 저해요인

(단위 : 명, %)

구 분	운영예산부족		관련기관의 간섭		기계·장비 부족		소유산림의 영세성		부채산주의 과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69	42.6	14	8.6	47	29.0	38	23.5	41	25.3
그렇다	14	8.6	13	8.0	13	8.0	9	5.6	14	8.6
보통이다	28	17.3	32	19.8	26	16.0	31	19.1	26	16.0
그렇지 않다	4	2.5	12	7.4	6	3.7	5	3.1	6	3.7
전혀그렇지않다	5	3.1	23	14.2	13	8.0	22	13.6	12	7.4
무응답	42	25.9	68	42.0	57	35.2	57	35.2	63	38.9

임산물판매 곤란		소득작목 부족		전문기술 및 인력부족		조합원들간의 유대관계 부족		산림조합의 지도부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44	27.2	57	35.2	53	32.7	26	16.0	22	13.6
10	6.2	16	9.9	20	12.3	9	5.6	9	5.6
29	17.9	24	14.8	34	21.0	48	29.6	47	29.0
6	3.7	1	0.6	6	3.7	6	3.7	11	6.8
11	6.8	9	5.6	4	2.5	12	7.4	14	8.6
62	38.3	55	34.0	45	27.8	61	37.7	59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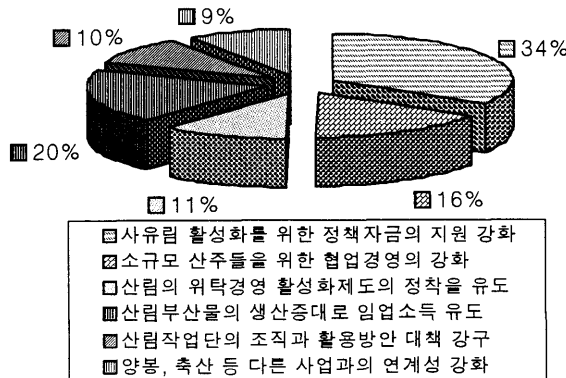
히 높으므로, 이러한 자가노동력을 이용한 산림경영은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된다.

임업노동은 농업노동과 달리 작업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클뿐만 아니라 작업의 계절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등 임업노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영림기능인으로 구성된 산림작업단의 육성이 필요하다. 조합원들도 자신들의 소유산림에 대한 임업노동의 적기 공급을 위하여 산림작업단의 육성을 희망하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산림작업단의 육성은 국가나 산림조합에서 담당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산

림작업단의 육성을 위해서는 첫째, 自生作業團 및 개별 임업노동자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소속의 민유림 작업단 형태로 적극적인 흡수가 필요하며, 둘째, 산림작업단을 육성함에 있어서 전업작업단과 겸업작업단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1개 군당 1개의 작업단의 규모보다는 지역의 임업노동 시장에 맞는 적절한 산림작업단의 규모 및 인원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장우환, 1990).

6) 임업소득

조합원들이 산림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못하는



<그림 1> 사유림 활성화 방안

〈표 7〉 임업노동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표

조사항목		구 분	빈 도(명)	백분비(%)
임업노동력 확보	자가노동력		92	56.8
	산림조합에 위탁		29	17.9
	협업체에 위탁		8	4.9
	고용노동력		28	17.3
	무응답		5	3.1
임업노동의 노임	적절하다		30	18.5
	너무비싸다		64	39.5
	너무싸다		21	13.0
	모르겠다		37	22.8
	무응답		10	6.2
산림작업단 육성	필요하다		114	70.4
	그저그렇다		33	20.4
	필요하지 않다		7	4.3
	무응답		8	4.9
산림작업단 육성방식	국가나 산림조합에서 육성		99	61.1
	부락 주민들을 중심으로 육성		18	11.1
	임업교육기관을 통한 육성		33	20.4
	기타		8	4.9
	무응답		4	2.5

가장 큰 이유는 임업소득의 발생이 농업, 축산 등 다른 산업에 비하여 현저히 낮거나 소득의 발생이 장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조합원의 50%이상은 산림

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전혀 없어서 산림경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산채, 버섯, 약재 등 산림부산물 재배를 통하여 1-2년 단위로 임업수입이 발생되는 조합원들의 경우 임

〈표 8〉 임업소득 및 전문조합 설립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조사항목		구 분	빈 도(명)	백분비(%)
임업소득	주벌수확		5	3.1
	간벌수확		5	3.1
	산림부산물 채취		10	6.2
	산채·버섯·약재 등의 재배		24	14.8
	산림작업 노임		11	6.8
	소득이 없었다		88	54.3
	무응답		19	11.7
품목별 전문조합 설립	필요하다		110	67.9
	그저그렇다		29	17.9
	필요없다		19	11.7
	무응답		4	2.5

〈표 9〉 임업소득 항목

(단위 : 명, %)

구 분	산림부산물 생산		휴 양 림 조 성		임 산 물 판로확보		양봉·축산 겸 용		목재생산 중 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필요하다	63	38.9	31	19.1	59	36.4	30	18.5	28	17.3
필요하다	11	6.8	13	8.0	13	8.0	13	8.0	11	6.8
그저그렇다	25	15.4	27	16.7	12	7.4	33	20.4	31	19.1
필요하지 않다	3	1.9	8	4.9	7	4.3	10	6.2	4	2.5
전혀필요치않다	4	2.5	14	8.6	7	4.3	8	4.9	16	9.9
무 응 답	56	34.6	69	42.6	64	39.5	68	42.0	72	44.4

산채 재배단지 조 성		목재가공시설 건 립		생수가공시설 건 립		유실·특용수 재 배		수 립 장 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33	20.4	29	17.9	23	14.2	61	37.7	5	3.1
21	13.0	8	4.9	9	5.6	16	9.9	9	5.6
24	14.8	25	15.4	17	10.5	24	14.8	19	11.7
4	2.5	6	3.7	10	6.2	3	1.9	12	7.4
10	6.2	17	10.5	28	17.3	7	4.3	38	23.5
23.5 70	43.2	77	47.5	75	46.3	51	31.5	79	48.8

업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 시각으로 산림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조합원들의 67.9%는 품목별 전문조합의 설립을 원하고 있었다. 선진국들의 협동조합 운동은 농축 산업분야에서 종합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협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종합협동조합의 한계로는 모든 사업기능이 한결같이 합리적으로 영위될 수 없으며, 종합경영체제는 정부의 정책사업에 따라 협동조합의 사업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행정보조기관적 성격을 탈피하기 어렵다. 또한 종합경영체제는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으며, 생산기술 지도기능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전문조합을 육성하여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문적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서기원, 1993).

산림조합은 전문조합(전북 표고산림조합) 1개소가 설립되어 있다. '99년 개정된 산림조합법에도 제2조(정의), 제13조(구역과 사무소), 제46조(사업) 및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에 전문조합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조합원의 대부분은 전문조합의 설립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문조합의 종류로는 표고버섯, 산림부산물, 조경수, 과실류를 이용한 전문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조합원에게 산림경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조합의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임업소득 항목의 다양화를 꾀하여야 한다. 〈표 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내에서 이루어지는 주벌수확과, 간벌수확에 대한 임업소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임업소득의 창출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설문분석 결과 조합원들이 임업소득의 창출을 위하여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산림부산물 생산의 증대, 임산물의 판로 개척, 유실수·특용수의 재배이었으며,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항목으로는 휴양림 조성, 목재생산의 증점, 수렵장 건설, 목재가공시설의 건립, 생수가공시설의 건립이었다. 특히 수렵장의 건설과 생수가공시설의 건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보다 느끼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향후 조합원의 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때 반드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산림조합이 진정한 협동조합으로서의 전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 산림조합이 과거의 정부 의존적이고 하향적인 성격을 가지고는 더 이상 존립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조합원과 함께 하는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조합원들도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산림조합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이 인간적 결합을 전제로 조직되는 인적단체라는 점에서 조합원은 협동조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1차적인 지위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조합원은 자신의 경제활동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연결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조합이라는 공동경제를 통하여 극복 내지는 개선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원은 조합을 떠나서는 존재하기 어렵고 또 조합원 없는 조합은 있을 수도 없다(권광식, 1993)

따라서 본 논문은 산림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임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식 성향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의 조합원 의식 성향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 교육이 필요하다.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합 임직원들과의 토론과 대화로써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조합원들의 이러한 행동양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하다(농협중앙회, 1997). 설문조사에서도 조합원의 24.7%가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연중 1-2회의 교육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합원들 31.5%가 산림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의 임분구조, 산림부산물, 임산물 유통, 정부의 재정지원 등, 한국의 임업현실에 맞는 협동조합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은 비경제적 단체조직으로 인식하였으며, 일반조직인 경제조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서광문, 1999). 그러나 협동조합도 법인격체로서 효율적 사업의 수행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조합원들도 산림조합 경제부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산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주를 위한 협동조합 교육교재의 작성과 산주 전담 교육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산림조합법의 개정에 대하여 조합원의 59.9%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39.5%는 산림조합이 국가 산림사업의 전담기관화 됨으로써 자신들의 사업에 더욱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홍보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조합원 자신이 소유한 산림에 애착을 가지고 조합의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유림 지도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지도과 및 협업과를 통한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산림조합 조합원은 현재 사유림 경영상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운영예산 부족, 기계·장비의 부족, 소유산림의 영세성, 임산물 공동판매 등을 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산림경영상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43.2%) 산림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가입 이후 25.9%가 소유 산림경영에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으며, 만족하고 있는 조합원은 5.6%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사유림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인 대리경영제에 대하여 34.0%가 반대하고 있었으며, 대리경영제의 방식에 있어서는 48.8%가 부분위탁을 원하고 있었다. 현행 대리경영제는 의무제가 아닌 권장제로 이 제도가 언제 정착될 것인지 기대하기가 어렵다(박경, 1999). 대리경영제의 정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위치한 산주들의 경우 법률적 보완(의무제 규정 등)을 통한 대리경영제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농산촌 사회의 공동화 현상에 따라 적기에 임업노동력의 공급이 필요하다. 현재 조합원의 56.8%가 자가 노동력으로 산림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조합원의 88.9%가 50대 이상의 노령층으로 몇 년 후에는 산림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70.4%가 산림작업단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고, 산림작업단은 국가나 산림조합에서 육성하여 산림노동력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산림작업단의 육성은 산림조합에서 시·군단위 주민들을 주축으로 육성하여 적기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조합원이 임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임업소득의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합원의 54.3%가 임업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14.8%가 산림부산물에서 임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합원들은 임업소득의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부산물 생산의 증대(38.9%), 임산물의 판로개척(36.4%), 유실수·특용수 재배(37.7%)를 지적하였다. 또한 67.9%의 조합원이 표고버섯, 조경수, 과실류 등의 품목별 전문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본 연구는 조합원의 의식성향 분석을 통하여 산림조합이 조합의 주체인 조합원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며, 조합원은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산림조합이 조합원과 일체화되어 사유림 진흥을 이루기 위해서 향후 필요한 연구로는, 산림조합의

입장에서 협동조합 교육 및 조합원 지도체계의 활성화방안, 임산물 유통, 대리경영제의 제도적 보완방안, 산림부산물의 재배와 판로개척, 품목별 전문조합 설립을 위한 지원강구 대책이 필요하였고,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조합의 사업에 몰입할 수 있는 조합몰입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권광식, 1999, 한국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협동조합의 역할, '98동계학술대회 주제발표 논문자료집, 한국협동조합학회 : 67-89
2. 김세빈, 1999, 21C기 임협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임협법개정과 임협의 발전방향, 한국산림경제학회 : 16-20
3. 김종관, 1984, 산주주도형 협업경영사업과 그 지도체계의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임학회지 67 : 17-27
4. 김종관, 1988,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의 전개에 따른 산주의식의 변화,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농협중앙회, 1997, 협동조합론 : 128-130.
6. 박경, 1999, 21C 임협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21세기 임협발전방향, 한국산림경제학회 : 21-26.
7. 박경석, 1989, 한국 산림조합의 성격규명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박태식, 1975, 한국 임업단체의 발전방안, 한국임학회지 27 : 23-26
9. 서광문, 1999, 협동조합의 경제적 본질에 관한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한국협동조합연구 제17집 제1호 : 59-75
10. 서기원, 1993, 종합협동조합과 품목별 생산조합의 발전방향, 한국협동조합학회, 농수축협 조직의 활성화방안 대토론회자료집 : 15
11. 손중호, 1984, 산림조합의 역할과 산계활동, 산림219 : 8-16
12. 손철호, 1990, 산림경영협업체의 경영실태

- 분석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3. 유병일, 1989, 산림조합 발전과정에 따른 사업경영분석에 관한 연구-임산물유통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4. 장우환, 1990, 임업인의 효율적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32 : 36-114.
 15. 장철수, 석현덕, 장우환, 정수봉, 1997, 사유림대리경영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99
 16. 최종운, 최종천, 1994, 임업협동조합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12집 : 23-38
 17. 최종운, 최종천, 1999, 협동조합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산림조합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제17집 제2호(발간예정)
 18. 최종천, 최종운, 1996, 임업협동조합의 발전방안 연구-산림경영협업체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제14집 : 47-67
 19. 최종천, 최종운, 1996, 임업구조개선을 위한 임야소유권 분석(Ⅱ)-산림경영협업체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농업정책연구, 제23권 2호 : 123-151
 20. 최종천, 최종운, 1998, 산지의 합리적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제6권 제2호 : 1-19.
 21. 협동조합개혁위원회, 1998, 협동조합개혁방안 : 5